

국정원 댓글서 필리버스터까지...싸움만 하다 날쌔다

막내린 19대 국회 결산

지난 2012년 출범한 19대 국회는 초선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면서 국민의 정치 변화를 충족해 줄 것이라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총선 직후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여야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고, 이듬해 불거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여야간 격렬한 대치가 시작됐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당은 국회 밖으로 나갔지만, 정권 정통성 시비로 여당은 무기력증에 빠졌다.

이후 세월호 참사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잇단 대형사건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국회는 한시도 민생에 집중할 날이 없었다. 대선 대립과 정쟁만 난무했다. 특히, 청와대의 지나친 국회 개입은 여야의 협상을 무위로 만들며 국회 무능을 부채질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는 이 같은 청와대의 행태에 반발도 했지만 친박(친박근혜)계와 계파 갈등에 묻히면서 결국 두 손을 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대책 법안들은 아무런 해결책 없이 휴지통에 버려졌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여야는 진상조사를 놓고 대립각만 세웠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개월 간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고, 본회의는 151일 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으나, 특별위 조사 연장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는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진행

세월호·메르스·교과서 국정화...

민생 집중 못하고 사사건건 대립 법안 1만건 폐기 '역대 최악 국회'

행'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비판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메르스 공동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제화가 되지 못했다.

19대 막판에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개혁법안, 대테러 방지법안 등 쟁점법안을 놓고 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하면서 대치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막는 효과를 보는 등 견제 역할은 했지만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민생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겨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4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7000여 건 가운데 처리된 법안은 7000여 건, 그리고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000여 건에 불과하다. 법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다이지만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였다.

20대 총선을 치를 선거구 획정을 놓고는 여야가 끝없는 평행선을 그으며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까지 초래하기도 했다.

무능 국회, 소통과 협력에 없는 국회란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0대에는 쇠신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도전 시사 반기문 총장 "내 발언 확대 해석됐다"

제주포럼 기조연설 "北과 대화 길 찾아야"...방북 재추진 의지 밝혀

방한 첫날인 지난 25일 오전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대선 도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발언이 과잉, 확대 해석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 발 물러섰다.

반 총장은 방한 이틀째인 26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참석 국내외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본뜻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기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자들을 만나 "다른(외국) 정치 지도자들도 '한국 언론에서 보도들이 나오는데 진짜 나가는 거냐'고 물어보셔서(반 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제주포럼에 참여한 무리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 고축통 전 싱가포르 총리, 이흥구 전 총리 등 보수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 총장은 앞서 이날 아침 제주 롯데호텔에서 전직 외교장관 및 전·현직 외교부 인사들과의 조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과잉 해석됐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반 총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자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은 이날 임기 중 방북 가능성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 대선 주자로서의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향한 길을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어 "남북 간 대화채널을 유지해온 것은 제가 유일한 게 야인가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방북 재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남북문제는 숙명"이라며 "대북 압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도적 문제를 통해 물꼬를 터 가며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자신의 방북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작년 5월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됐고, 지난 12월에도 방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선자 1명도 없는 광주 더민주 지역위원장

낙선자·지방의원들 몰려 치열한 경쟁 예고

광주에서 단 1명의 당선인도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6일 당진구 광주시당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주시역 8개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통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지난 20대 총선 결과 단 1석도 얻지 못한 탓에 전직 국회의원과 총선 낙선인,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4·13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 가운데 총선 참패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용섭 전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위원장 수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일부 광주시의원들도 도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만료를 앞둔 19대 현역 의원 가운데는 박해자(서구갑)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박 의원과 송갑석 총선 후보가 지역위원장을 놓고 다시 경쟁할 수도 있다. 이 전 의원이 물러난 광주 광산구의 경우는 김민중 시의원이 지역위원장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의 지

역구인 복구갑도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낙선한 정준호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차기 광주시당 도전이 예상되는 강 의원의 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강 의원이 대리인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차기 광주 북구청장 도전에 나선 것으로 예상되는 문상필 시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구에도 현 양항자 전 삼성전자 상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김영남 시의원도 공모에 참여할 지 고민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중에는 최영호 남구청장과 민행배 광산구청장이 지역위원장 또는 광주시당 위원장에 도전할만한 인사로 정치권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동남구는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북구구는 이형석 전 광주시경제부시장 등이 수성을 위해 뛰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지역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위원장은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전무하다보니 시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역위원장 도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역위원회에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잠잠하던 與 대권경쟁 반기문 바람 타고 재점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시사발언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여권에서도 대권 경쟁의 문이 열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기존의 '잠룡'들은 초토화된 상태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낙선했고, 김무성 전 대표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났으며 유승민 의원의 공천파동 회오리 속에 휘말려 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권 경쟁에 뛰어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닫혀있던 대권 경쟁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전체는 물론 잠룡들도 일단 반 총장의 대권 도전 시사 발언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여론의 관심이 여권의 대권 경쟁에 집중되면서 '인물난'에 잠재됐던 당 분위기를 반전시킬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대선 주자들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에서는 반 총장과 오세훈 전 시장이 앞서 달려가고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지사, 유승민 의원이 이를 추격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우택 의원도 가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반 총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현실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을 경우 혹독한 '검증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분야

- 민사/가사/행정 소송
- 형사소송/수사 대응
- 기업법률자문/기업회생·파산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 행정심판/조세심판/소청심사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로 권오성 올림

주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 전화 062)236-4000

순천분사무소 ▶ 전남 순천시 황지로 30, 거형빌딩 202호 · 전화 061)727-7099 · 팩스 061)721-4552

구성원 변호사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원 부장판사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원장

노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검 검사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검 검사

소속 변호사

윤철호 (서울대 법학과, 사사45회)
박충배 (서울대 철학과, 변시 1회)
김경욱 (전남대 법학과, 변시 1회)
민양이 (경희대 정외과, 변시 3회)
정은혜 (연세대 법학과, 변시 3회)
류노엘 (조선대 법학과, 변시 4회)
정찬욱 (경향대, 변시 4회)